

나당전쟁 연구동향과 전망*

이상훈**

1. 머리말
2. 나당전쟁 연구의 동향
3. 나당전쟁 연구의 현황
4. 나당전쟁 연구의 제문제
5. 맺음말

1. 머리말

7세기는 우리 역사에 있어 격동의 시기였다. 백제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던 신라, 고구려 멸망에 고심하던 당이 서로 연합하면서 나당동맹이 체결되었다. 결국 나당연합군은 660년에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는 고구려마저 멸망시켰다. 이로써 삼국시대는 막을 내리고 삼국통일시대로 접어든다.

* 이 논문은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삼국통일전쟁은 한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쟁 중의 하나다.¹⁾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모습을 드러낸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²⁾ 이러한 삼국통일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羅唐戰爭이다.

본 논문에서는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성과들을 동향, 현황, 제문제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자 한다.³⁾ 먼저 동향에서는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고 활성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현황에서는 시기별·연구자별·주제별 연구 현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제문제에서는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문제나 연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로써 나당전쟁 연구에 대한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2. 나당전쟁 연구의 동향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신라와 당 사이는 전후처리 문제를 두고 멀어진다. 신라와 당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669년(혹은 670년)부터 676년까지 벌인 전쟁이 바로 나당전쟁이다. 나당전쟁의 결과 신라가 승리하였는데, 민족생존을 위한 항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⁴⁾ 다시 말해 당의 한반도 영토화정책과 신라의 삼국통일정책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라 할 수 있다.⁵⁾

1)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2) Edwin O. Reischauer & John K. Fairbank,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1960.

3) 이 과정에서 특정 학설이나 쟁점 혹은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지는 못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4) 신형식, 「삼국통일전후 신라의 대외관계」, 『신라문화』2, 1985.

5) 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28, 1981.

이러한 나당전쟁 관련 내용은 중국 사서들보다 『삼국사기』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삼국사기』의 내용과 인식을 통해 나당 전쟁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12세기에 간행된 『삼국사기』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고 있으며, 이후 15세기의 『동국통감』과 18세기의 『동사강목』도 신라-고려 정통론에 입각해 쓰여졌다.⁶⁾

그런데 조선후기 일부 실학자들은 신라의 ‘一統三韓’ 즉 삼국통일을 부정하고 나섰다. 한백겸은 신라가 한반도 동남쪽에 안주하여 서북 일대를 포기하였다고 보았고, 유득공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김정호는 삼국통일을 아예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⁷⁾ 이후 일제시기 선학들은 나당전쟁 자체에 무관심했는데, 이는 신라의 삼국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근대 이후 나당전쟁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이는 일제시기 일본학자 津田左右吉과 池内宏이다. 津田左右吉은 당과 신라의 전투지역을 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⁹⁾ 그 과정에서 백제-고구려 故地는 당 본토에서 거리가 멀어 교통이 불편하고 유민들이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신라가 병탄하였다고 보았다. 즉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을 신라가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池内宏은 그의 논문에서 ‘신라의 백제고지 점유와 그에 대한 당의 처치, 당의 신라 정벌, 당의 반도 방기’라는 장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데,¹⁰⁾ 여기에서 그의 신라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 신라가 승리한 것으로 기록된 매소성 전투는 신빙할 수 없다고

6) 한영우,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7) 김영하, 「신라의 삼국통일을 보는 시각」, 『신라중대사회연구』, 일지사, 2007.

8)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9) 津田左右吉, 「唐羅交戰地理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 1915.

津田左右吉, 『津田左右吉全集』, 岩波書店, 1964.

10) 池内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2, 1930. 池内宏, 『滿鮮史研究』上世2, 吉川弘文館, 1960.

하였다. 그는 나당전쟁을 신라와 당이라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라의 욕심으로 인해 당이 정벌을 단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검모잠의 반란을 지원했던 신라가 당이 차지하고 있던 백제고지를 침략하였기 때문에, 당이 이에 대한 조치로서 신라를 정벌하게 되었으며, 이후 안동도호부가 요동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는 ‘放棄’되었다는 것이다.

중국학자 陳寅恪은 吐蕃(티베트)의 발호로 인해 당의 서북지역이 위급해지자 동북지역을 경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은 동북지역에 대해 소극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반도를 방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¹¹⁾ 이와 유사한 시각으로 黃約瑟은 670년대 당의 주요 군사전략은 서북 국경을 위협하고 있던 토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인귀고간이근행 등의 서부 전선이동 때문에 안동도호부가 점점 북쪽으로 옮겨졌다고 보았다.¹²⁾ 한반도가 방기되었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 주도권 싸움(나당전쟁)의 승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津田左右吉·池內宏과 陳寅恪·黃約瑟의 관점은 이후 일본과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매김하였고,¹³⁾ 서구학계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나당전쟁을 이해하였다.¹⁴⁾ 국외학계의 입장은 고구려 멸망 후 신라가 백제고지를 ‘침략’하자 당이 신라를 ‘정벌’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고, 토번의 발호로 인해 당이 신라를 ‘방기’하자 전쟁은 종결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나당전쟁을 바라보는 국외학계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방기론’¹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와

11) 陳寅恪,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稿』, 上海商務印書館, 1941. 陳寅恪, 『隋唐制度淵源略論稿·唐代政治史述論稿』, 三聯書店, 2004.

12) 黃約瑟,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中華書局, 1997.

13) 高明士, 「從天下秩序看古代的南韓關係」, 『中韓關係史論文集』,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1983. 王東福, 「統一新羅的出現對公元7-9世紀東北亞國際秩序的影響」, 『東疆學刊』 17-3, 2000.

14) Denis Twitchett, 'Kao-tsung and the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15) 당이 내외적 우환으로 인해 나당전쟁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보는 입장을 총칭하여

당 사이에 발생한 전투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쟁의 개시 및 종결의 배경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나당전쟁 후 안동도 호부가 요동으로 이동하고, 당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신라의 역할보다는 토번의 발호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국외연구 중 당이 한반도에서 물러난 원인으로 신라의 역량 강화를 언급한 연구도 있지만 소수의 견해에 불과하다. 范文瀾, Fitzgerald, 魏國忠, 史念海, 齊壽 등은 고구려 유민의 대규모 반란이 당에게 부담을 주었다고 보았으며,¹⁶⁾ 劉後濱은 당이 백제-고구려를 점령하였지만 강한 저항을 받아 그 지역에 대한 통치가 상당히 곤란하였다고 서술하였다.¹⁷⁾ 이들 대부분은 고구려 유민의 저항, 보급로의 제한, 병력의 부족 등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¹⁸⁾ 여기에서도 당과 신라의 전쟁은 고려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韓昇은 한반도를 장기간 직접 점령통치하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고 내외의 제약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후퇴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¹⁹⁾ 王小甫는 당이 원래부터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²⁰⁾ 이렇듯 국외학계의 연구는 신라와 당이라는 국가 간의 충돌 자체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배경 혹은 당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반도 방기론’이라 부르고자 한다.

- 16) 范文瀾, 『中國通史』3, 人民出版社, 1965. C. P. Fitzgerald, *The Empress Wu*,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68. 魏國忠, 「唐與黑水靺鞨之戰」, 『北方民族史研究』2, 中州古籍出版社, 1995. 史念海, 『中國通史』6, 上海人民出版社, 1997. 齊壽馬新, 『中國政治通史』5, 泰山出版社, 2002.
- 17) 劉後濱, 「論唐高宗武則天至玄宗時期政治體制的變化」, 『唐研究』3, 北京大學出版社, 1997.
- 18) 岑仲勉, 『隋唐史』, 上海高等教育出版社, 1957. 呂思勉, 『隋唐五代史』上, 太平書局, 1980.
- 19) 韓昇, 「唐平百濟前後的東亞國際形勢」, 『唐研究』1, 北京大學出版社, 1995.
- 20) 王小甫, 「唐朝與新羅關係史論」, 『唐研究』6, 北京大學出版社, 2000.

그러나 국내학계의 나당전쟁에 관한 입장은 국외학계의 견해와 전혀 다르다. 이기백은 신라가 검모잠의 부흥군을 원조하여 당의 축출을 꾀하였고, 백제고지로 군대를 출동시켜 부여융의 백제군(웅진도독부)과 당군을 각처에서 격파하였으며, 매소성 전투를 위시한 한강유역의 전투에서 당군 축출에 성공하였는데, 이같이 신라가 당의 침략을 무력으로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였다는 사실은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하였다.²¹⁾

이병도는 검모잠 세력이 당의 세력을 축출하려는 신라군과 합세하여 눈부신 활동을 계속하였고, 이에 요동에 있던 당군이 한반도로 남하해 고구려의 南界와 신라의 北界에서 羅·麗 연합군과 싸웠으며, 치열한 전투를 거쳐 드디어 676년 요동으로 철수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결국 당 세력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²⁾

미국학자 John C. Jamieson은 『삼국사기』가 중국 자료를 편입시켜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실망스러운 점이 적지 않지만, 당 태종과 당 고종 기간만은 『삼국사기』가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하였다.²³⁾ 특히 그는 나당전쟁에 투입된 당의 장수들을 분석하면서 당시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관해 중국측 기록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하였다.

Jamieson의 연구 이후 국내학계에서는 나당전쟁에 관해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1950년대부터 한국적 주체성 찾기가 일어나기 시작해 1960년대에 민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민족의 우수성을 역사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 사회기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나당전쟁은 비록 영토적

21) 이기백, 『국사신문』, 태성사, 1961.

22) 이병도, 「고구려의 일부유민에 대한 당의 추호정책」, 『진단학보』 25·26·27, 1964.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87.

23) John C. Jamieson, 「나당 동맹의 와해 : 한중 기사 취합의 비교」, 『역사학보』 44, 1969.

한계는 있지만 민족생존을 위한 항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신라는 외세를 능동적으로 이용했고 또 자율적으로 그들을 축출시켰으므로 자력에 의해서 통일을 완수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²⁴⁾ 이 시기까지의 연구는 나당전쟁 자체가 그리 주목받지 못했고,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당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국내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이종학은 군사학적으로 접근하여 삼국통일과정을 새롭게 조망하였으며,²⁵⁾ 신형식은 당시 신라의 대외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²⁶⁾ 한편 양병룡은 당시 고구려 유민의 동향을 파악하여 나당전쟁 개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²⁷⁾ 이 시기에 나당전쟁과 관련된 연구가 조금씩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는 199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민덕식은 나당전쟁의 원인을 개괄하고 최대 격전장소였던 매소성의 위치비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²⁸⁾ 허중권은 『신라 통일전쟁사의 군사사적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나당전쟁의 전투양상을 전반적으로 계량화하여 정리하였다.²⁹⁾ 이호영이 일련의 연구들을 집성하여 『신라삼국통합과 려·제패망원인연구』를 펴냄으로써,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는 일정한 체계가 잡히게 되었다.³⁰⁾

이후 노태돈은 오골성 전투가 요동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명확히 하고 나당전쟁의 개전시점을 669년으로 설정하여 나당전쟁 연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³¹⁾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서인한은

24) 변태섭, 「삼국통일의 민족사적 의미」, 『신라문화』2, 1985.

25) 이종학, 「신라삼국통일의 군사사적 고찰」, 『군사』8, 1982.

26) 신형식, 「삼국통일전후 신라의 대외관계」, 『신라문화』2, 1985.

27) 양병룡, 「나당전쟁 진행과정에 보이는 고구려유민의 대당항쟁」, 『사충』46, 1997.

28) 민덕식, 「나당전쟁에 관한 고찰 -매소성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40, 1989.

29) 허중권, 『신라 통일전쟁사의 군사사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30)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려·제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나당전쟁사』를 발간하여 나당전쟁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³²⁾ 한편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관련 연구도 등장했다. 김영하는 나당전쟁이 옛 백제영역을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백제통합전쟁론을 제시하였으며,³³⁾ 김수태는 김인문이라는 인물을 통해 나당관계를 조망하기도 하였다.³⁴⁾ 이렇듯 관련 연구가 축적되면서 다양하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토양이 마련되었다.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국내학자 서영교와 중국학자 拜根興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먼저 서영교는 나당전쟁 당시 활약한 신라의 장창당에 주목하면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³⁵⁾ 이후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여 『나당전쟁사 연구』라는 연구저서를 발간함으로써 나당전쟁 연구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³⁶⁾ 서영교는 나당전쟁의 전개가 西域의 전황과 맞물려 돌아갔다고 파악하여, 한반도에 국한된 시야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669년 9월 토번이 천산남로를 급습하자 670년 4월 설인귀가 이끄는

31) 노태돈, 「대당전쟁기(669-676) 신라의 대외관계와 군사활동」, 『군사』 34, 1997.

32) 서인한, 『나당전쟁사』, 국방군사연구소, 1999.

33) 김영하, 「신라의 백제통합전쟁과 체제변화」, 『한국고대사연구』16, 1998.

34) 김수태, 「나당관계의 변화와 김인문」, 『백산학보』52, 1999.

35) 서영교, 「신라 장창당에 대한 신고찰」, 『경주사학』17, 1998.

36) 서영교, 「감은사 창건배경에 대한 신고찰 -나당전쟁 후 국제상황을 중심으로」, 『불교문화연구』2, 2001.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국제정세의 변화와 나당전쟁의 추이』,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서영교, 「나당전쟁기 석문전투」, 『동국사학』38, 2002.

서영교, 「나당전쟁의 개시와 그 배경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역사학보』173, 2002.

서영교, 「나당전쟁과 토번」, 『동양사학연구』79, 2002.

서영교, 「신라 통일기 기병증설의 기반」, 『역사와현실』45, 2002.

서영교, 「신라 기병대 오주서 부속 보병」, 『경주문화연구』6, 2003.

서영교, 「나당전쟁기 당변방군의 내습과 이근행」, 『동국사학』42, 2006.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서영교, 「구서당 완성 배경에 관한 신고찰 -나당전쟁의 여진」, 『한국고대사연구』18, 2007.

당의 주력군이 서역으로 총 투입되었고, 이에 670년 3월 신라군이 압록강 이북으로 진출할 수 있었으며, 675년 9월 매소성에 주둔하던 말갈족 출신 이근행이 말갈병을 이끌고 서역으로 이동하자, 이듬해 나당전쟁은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즉 신라는 서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당군 주력이 서역으로 이동하자 전쟁을 감행하였고, 이후 당군 주력이 이근행을 따라 서역으로 이동하자 나당전쟁이 종결되었으므로, 終戰은 매소성 전투 승리의 산물이 아니며 국제적 상황이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분석하였다. 서영교의 연구는 주로 국내에 머물고 있던 기존의 시각을 동아시아라는 큰 흐름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평할 수 있다.

다음으로 拜根興은 나당전쟁 연구상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다양한 중국측 자료의 소개와 정리로 나당전쟁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³⁷⁾ 일련의 연구성과를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라는 연구저서에 집성하였다. 拜根興은 675년의 매소성 전투는 그 전투기록이 불완전한 점에서 볼 때 신라가 승리한 전투가 아니며, 이때는 이미 당의 서북변경이 위협해졌기 때문에 매소성 전투는 당군이 철수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676년 설인귀는 象州에 유배중이었기 때문에 전투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기벌포 전투도 국내 학계의 입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즉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의 중점은 매소성 전투나 기벌포 전투가 아니라 그 이전의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拜根興은 나당전쟁 연구상의 문제점을 다시 언급하며, 나당전쟁의 결과는 전쟁 후 신라가 다시 당에 臣屬하여 나당간의 군신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나당 모두의 승리로 보아야

37) 拜根興, 「“나당전쟁” 연구 중의 몇 가지 문제」, 『중국학보』 46, 2002.
 拜根興, 『7세기 중엽 나당관계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拜根興,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拜根興, 「論羅唐戰爭的性質及其雙方的交往」, 『中國邊疆史地研究』1, 2005.
 拜根興, 「당과 신라관계에 관한 문제 재연구 -나당전쟁을 중심으로」, 『7세기 동아시아의 신라』, 경주시·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

한다는 ‘唐羅 宗藩論’³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배근홍의 연구는 나당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중국측 자료를 발굴·소개하고 관련 사료들의 신빙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점에서 큰 의미를 들 수 있다.

서영교와 拜根興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나당전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종복은 고구려 멸망 이후 안동도호부의 동향을 파악하여 나당전쟁의 전개과정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³⁹⁾ 이정빈은 고구려 부흥군을 인솔했던 고연무의 실체를 규명하여 신라장군 설오유와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⁴⁰⁾ 이문기는 신라 문무대왕대의 군사정책을 정리하여 거시적 안목으로 신라의 군사활동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⁴¹⁾ 김선숙은 나당전쟁을 전후한 신라와 일본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나당전쟁 이후의 대일외교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⁴²⁾ 권덕영은 나당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여 나당관계의 특수성을 보여주었다.⁴³⁾ 한편 심정보는 나당전쟁 당시 신라가 北境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파악하기도 하였다.⁴⁴⁾

이러한 과정에서 나당전쟁 연구와 관련하여 큰 획을 긋는 연구가 제출되었다. 노태돈은 『삼국통일전쟁사』를 집필하면서 나당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갔다.⁴⁵⁾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한반도 방기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나당전쟁은 669년

38) 나당전쟁 종결 후 羅唐 양국이 ‘宗藩’ 관계를 다시 수립하고, 당과 주변민족 국가의 종번관계에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당전쟁의 승패는 무의미하다는 시각을 ‘당라 종번론’이라 부르곤자 한다.

39) 김종복, 「고구려멸망 이후 당의 지배정책 -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사람』19, 2003.

40)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현실』72, 2009.

41) 이문기, 「신라 문무대왕의 군사정책에 대하여」, 『역사교육논집』32, 2004.

42) 김선숙, 「나당전쟁 전후 신라·일본간 외교관계의 추이와 그 배경」, 『일본학』23, 2004.

43) 권덕영, 「나당교섭사에서의 조공과 책봉」,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006.

44) 심정보, 「나당전쟁기 신라의 북경인식」, 『신라사학보』 4, 2005.

45)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4월경에 시작되었으며, 670년 3월에 신라군이 요동으로 진출하므로 토번의 발호와 나당전쟁의 개시는 구체적인 관계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즉 나당전쟁의 개전은 별다른 제3의 변수가 없는 가운데, 일차적으로 신라의 정세판단과 전쟁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신라의 백제통합론을 비판하고, 삼국통일론에 대한 논지를 강화하였다. 노태돈의 연구는 나당전쟁의 연구범위를 요동까지 확대하고 삼국통일에 대한 인식의 틀을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어 이상훈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나당전쟁 연구』라는 연구저서를 발간하였다.⁴⁶⁾ 이상훈은 나당전쟁에 관한 논의는 외부적 상황을 검토하기 이전에 내부적 상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나당전쟁의 배경이나 결과를 도출하기에 앞서, 나당전쟁이라는 전쟁 자체에 주목하여 군사적 관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군사전략이나 오골성·매소성·기벌포 전투 등 개별 전투를 다루며, 나당전쟁에 관한 논의를 신라 중심으로 확장하였다. 이상훈의 연구는 토번의 역할을 중시하는 시각에 대한 일정한 비판을 가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한편 국외학계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나당전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전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데, 중국학자

46) 이상훈, 「나당전쟁기 당의 군사전략과 그 변화」,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상훈, 「나당전쟁기 당의 군사전략 변화」, 『역사교육논집』, 2006.
 이상훈, 「당의 군사전략을 통해 본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신라문화』29, 2007.
 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90, 2008.
 이상훈, 「나당전쟁기 당의 병력 운용과 전후 수습책」, 『중국사연구』55, 2008.
 이상훈, 「나당전쟁의 개전과 설오유 부대」, 『역사교육논집』45, 2010.
 이상훈, 「나당전쟁의 군사적 원인과 신라의 전쟁준비」, 『역사와경계』79, 2011.
 이상훈, 「나당전쟁기 문두루 비법과 해전」, 『신라문화』37, 2011.
 이상훈, 「나당전쟁 종전배경과 신라의 역할」, 『동북아역사논총』32, 2011.
 이상훈,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나당전쟁 서술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120, 2011.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이상훈, 「나당전쟁기 신라의 대규모 축성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23, 2016.

들이 많은 편이다. 金錦子是 나당전쟁의 진행과정과 전후 동북아 국제정세를 다루어 국내학계의 연구 흐름을 많이 소개하였으며,⁴⁷⁾ 高丹丹과 趙智濱은 나당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웅진도독부 문제로 보면서 나당전쟁의 전략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⁴⁸⁾ 劉海霞는 나당전쟁을 전후한 신라와 당의 외교 전략을 조망하였으며,⁴⁹⁾ 孫煒冉은 매소성 전투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중국 사서와 비교하면서 이를 부정하였다.⁵⁰⁾ 그리고 일본학자 植田喜兵成智는 671년 당 수군의 군사활동을 구체화하여 나당전쟁 초기 상황을 복원하였으며,⁵¹⁾ 나당전쟁 관련 『삼국사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기에 담겨진 의미를 통해 나당전쟁의 이해도를 높였다.⁵²⁾

2010년대 이후의 연구를 보면, 주제가 보다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보돈과 전경효는 7세기 나당관계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나당전쟁 당시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⁵³⁾ 김병희는 매소성의 위치 비정을 통해 매소성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전황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며,⁵⁴⁾ 장광열은 매소성 전투가 당시 국제정세에

47) 金錦子, 「論七世紀中後期唐朝與新羅關係演變及對東北亞政局的影響」, 『延邊大學學報』41-6, 2008.

48) 高丹丹, 「熊津都督府始末 -兼論唐·羅戰爭的直接原因」, 『北大史學』13, 2008. 趙智濱, 「熊津都督府陷落始末 -兼論唐羅戰爭的爆發-」, 『中國邊疆史地研究』20-2, 2010.

49) 劉海霞, 「七世紀中葉新羅對唐外交策略之嬗變」, 『博物館研究(歷史研究)』108, 2009.

50) 孫煒冉, 「淺談唐·羅戰爭的“買肖城之戰”」, 『東北史地』3, 2010.

51) 植田喜兵成智, 「唐人郭行節墓誌からみえる羅唐戰爭 -671年の新羅征討軍派遣問題を中心に-」, 『東洋學報』96-2, 2014.

52) 植田喜兵成智, 「百濟高句麗滅亡後の新羅·唐關係 -羅唐戰爭を中心に-」, 早稻田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植田喜兵成智, 「羅唐戰爭期記事にみる新羅の對唐意識 -三國史記文武王14·15·16條の再檢討-」, 『史滴』36, 2014.

53) 주보돈, 「7세기 나당관계의 시말」, 『영남학』20, 2011.

전경효, 「7세기 후반 나당관계와 김유신」, 『대구사학』115, 2014.

54) 김병희, 「나당전쟁기의 매소성 전투 연구 -위치 비정과 675년의 전황 복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병희,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군사』91, 2014.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거시적으로 살펴보았다.⁵⁵⁾ 이준성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나당전쟁기 신라가 실행한 군사전략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였고,⁵⁶⁾ 송영대는 신라가 전략전술을 시기별로 어떻게 실행했는지 개괄하였다.⁵⁷⁾ 또한 한준수는 신라의 군사조직인 신삼천당과 삼변수당의 실체를 규명하여 신라의 군사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⁵⁸⁾ 김강훈은 신라군과 연합한 고구려 부흥세력의 요동 활약을 조망하여 나당전쟁 초기 상황을 복원하고 있다.⁵⁹⁾

3. 나당전쟁 연구의 현황

나당전쟁을 주제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같은 시기 관련 연구들은 약 70편에 이른다.

〈표 1〉 나당전쟁 시기별 연구현황

구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연구논문	연구저서	합계
일제강점기	·	·	2	·	2
1980 이전	·	·	1	·	1
1980 ~ 1989	1	·	3	·	4
1990 ~ 1999	·	1	5	2	8
2000 ~ 2009	2	2	25	3	32
2010 이후	2	1	19	1	23
합계	5	4	55	6	70

55) 장광열, 「매소성 전투가 7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제정치변화에 주는 함의」, 『군사연구』135, 2013.

56) 이준성, 「나당전쟁기 신라의 군사전략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57) 송영대, 「6~7세기 신라의 전략·전술 입안과 활용」, 『한국사연구』169, 2015.

58) 한준수, 「신라 통일기 신삼천당의 설치와 운용」, 『한국고대사연구』78, 2015.

한준수, 「신라 통일기 삼변수당의 성립과 의미」, 『한국고대사탐구』22, 2016.

59) 김강훈, 「요동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군사』99, 2016.

나당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성과들을 취합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 가운데 석사학위논문 5편, 박사학위논문 4편, 연구논문 55편, 연구저서 6편이다. 이를 백분위로 나타내면 석사학위논문 7.1%, 박사학위논문 5.7%, 연구논문 78.6%, 연구저서 8.6%이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연구논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시기별로 보면 일제강점기 2편, 1980년 이전 1편, 1980년대 4편, 1990년대 8편, 2000년대 32편, 2010년 이후 23편이다. 백분위로 나타내면 일제강점기 2.9%, 1980년 이전 1.4%, 1980년대 5.7%, 1990년대 11.4%, 2000년대 45.7%, 2010년 이후 32.9%이다. 2000년 이후의 연구가 7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을 참조해서 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 나당전쟁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일제강점기 2편(일본)과 1980년 이전 1편(미국)의 연구논문은 모두 외국인이 작성한 것이다. 이후 1980년대에 최초의 석사학위논문과 연구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연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최초의 박사학위논문과 연구저서들이 발간되면서 큰 틀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관련 연구성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표 2> 나당전쟁 국적별 연구현황

구 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연구논문	연구저서	합 계
한 국	4	3	42	5	54
중 국	·	1	8	1	10
일 본	1	·	4	·	5
미 국	·	·	1	·	1
합 계	5	4	55	6	70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를 국적별로 구분해 보면 <표 2>와 같다. 나당전쟁에 관해서는 단연 국내학자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석사학위

논문 4편, 박사학위논문 3편, 연구논문 42편, 연구저서 5편이 나와 있다. 전체 연구성과에서 국내학자들은 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학자들의 관련 연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경우 박사학위 1편, 연구논문 8편, 연구저서 1편으로 1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학자 拜根興은 국내(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국에서 계속 나당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拜根興의 박사학위논문 1편과 연구논문 2편은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일본의 경우 석사학위 1편, 연구논문 4편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2편 이후 관련 연구가 중단되었다가, 근자에 植田喜兵成智(와세다대학)가 석사학위를 받고 연구논문 2편을 새롭게 발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구논문 1편으로 1.4%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 말 John C. Jamieson이 국내 학술지에 나당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였고, 이후 국내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나당전쟁 연구자들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석·박사학위논문을 다시 연구논문이나 연구저서로 발행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학위논문과 연구논저의 주제가 중복될 경우 학위논문을 기준 시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구성과가 여러 편일 경우 개인의 최초 연구성과를 연구의 시작 시점으로 정했다.

나당전쟁과 관련된 연구자는 전체 37명으로 정리되었다. 연구자의 국적별로 보면 한국 27명, 중국 6명, 일본 3명, 미국 1명이다. 이를 백분위로 나타내면 한국 73%, 중국 16.2%, 일본 4.3%, 미국 2.7%이다. <표 2>의 국적별 전체 연구성과와 큰 차이 없이 한국 > 중국 > 일본 > 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나당전쟁 연구자별 현황

구 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연구논문	연구저서	합 계
1	津田左右吉	일본	·	·	1	·	1
2	池内宏	일본	·	·	1	·	1
3	Jamieson	미국	·	·	1	·	1
4	이종학	한국	·	·	1	·	1
5	신형식	한국	·	·	1	·	1
6	민덕식	한국	·	·	1	·	1
7	양병룡	한국	1	·	1	·	2
8	허중권	한국	·	1	·	·	1
9	노태돈	한국	·	·	2	1	3
10	이호영	한국	·	·	·	1	1
11	김영하	한국	·	·	1	·	1
12	서영교	한국	·	1	9	1	11
13	서인한	한국	·	·	·	1	1
14	김수태	한국	·	·	1	·	1
15	장학근	한국	·	·	1	·	1
16	김중복	한국	·	·	1	·	1
17	이문기	한국	·	·	1	·	1
18	김선숙	한국	·	·	1	·	1
19	拜根興	중국	·	1	3	1	5
20	심정보	한국	·	·	1	·	1
21	권덕영	한국	·	·	1	·	1
22	이상훈	한국	1	1	10	1	13
23	金錦子	중국	·	·	1	·	1
24	高丹丹	중국	·	·	1	·	1
25	劉海霞	중국	·	·	1	·	1
26	植田喜兵成智	일본	1	·	2	·	3
27	이정빈	한국	·	·	1	·	1
28	趙智濱	중국	·	·	1	·	1
29	孫煒冉	중국	·	·	1	·	1
30	주보돈	한국	·	·	1	·	1
31	김병희	한국	1	·	1	·	2
32	이준성	한국	1	·	·	·	1
33	장광열	한국	·	·	1	·	1
34	전경효	한국	·	·	1	·	1
35	송영대	한국	·	·	1	·	1
36	한준수	한국	·	·	2	·	2
37	김강훈	한국	·	·	1	·	1

그런데 나당전쟁 연구자별 현황을 정리해 보면, 관련 연구자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당전쟁과 관련된 연구가 1편인 연구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연구성과가 2편 이상인 연구자들을 추려보면 8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석사학위논문과 연구논문의 주제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면, 6명 정도가 복수의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종합적인 고찰을 한 박사학위논문(1편)이나 연구저서(1편)를 포함하면, 국내외 8명 정도가 나당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루었거나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나당전쟁 주제별 연구현황

구 분		연구논문	내 용
1	대외관계	18	국제정세, 나당관계, 나일관계, 조공·책봉관계 등
2	개별 전투	9	오골성, 석문, 매소성, 기벌포 등
3	군사활동	7	군사전략, 방어전략, 군사정책 등
4	군사조직	5	장창당, 오주서, 삼변수당, 신삼천당, 기병 등
5	고구려 유민	4	고연무, 검모잠, 안동도호부 등
6	기록 신빙성	3	『삼국사기』 및 중국사서 신빙성 문제
7	전쟁 원인	3	군사적 원인, 웅진도독부 문제 등
8	위치 비정	2	패강, 매소성 등
9	대외인식	2	신라 北境 인식 및 對唐 인식
10	전쟁 성격	1	삼국통일전쟁 및 백제통합전쟁
11	교과서 서술	1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 문제
합 계		55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석·박사학위논문과 연구저서를 제외하고, 연구논문 55편을 대상으로 세부 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개별 주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개별 주제는 대외관계, 개별 전투, 군사활동, 군사조직, 고구려 유민, 기록 신빙성, 전쟁 원인,

위치 비정, 대외인식, 전쟁 성격, 교과서 서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대외관계이다.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로서 국제정세, 나당관계, 나일관계, 조공·책봉관계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총 18편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다. 7세기 한반도 3국을 비롯하여 중국 및 일본의 정세 변동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개별 전투이다. 오골성, 석문, 매소성, 기벌포 등 나당전쟁의 주요 전투를 직접 다루고 있다. 총 9편으로 16.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전쟁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개별 전투에 대한 관심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셋째, 군사활동이다. 군사전략, 방어전략, 군사정책 등 직접 전투 이외의 군사활동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총 7편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 전투보다 국가의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넷째, 군사조직이다. 장창당, 오주서, 삼변수당, 신삼천당, 기병 등 나당전쟁을 전후하여 조직되거나 활동한 군사조직에 대한 연구이다. 총 5편으로 9.1%를 차지하고 있다. 당군의 본격적인 침입과 전쟁 종결 후의 영향 등으로 새롭게 편성되는 군사조직에 대한 고찰이다.

다섯째, 고구려 유민이다. 고연무, 검모잠, 안동도호부 등 고구려 부흥운동과 연관된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총 4편으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나당전쟁과 고구려 부흥운동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고구려 연구자들의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섯째, 기록 신빙성이다. 『삼국사기』와 중국사서들은 나당전쟁에 대해 서로 다르게 서술한 측면이 많은데, 이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총 3편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기록의 신빙성에 따라 전쟁의 결과나 의의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일곱째, 전쟁 원인이다. 나당전쟁의 일반적 원인 외에 군사적 원인과 웅진도독부의 점령 문제를 다루고 있다. 총 3편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전쟁이 구체적으로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부각되고 있다.

이 외에 전투장소의 위치 비정 문제(2편), 신라의 국경이나 당에 대한 인식 문제(2편), 나당전쟁의 성격 문제(1편), 역사교과서의 서술 문제(1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쟁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외적인 요소는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전쟁의 배경이나 결과 등을 도출하고 있다. 반면 전쟁 내적인 요소는 전투나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전쟁 자체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록의 신빙성 문제, 고구려 유민과의 관련성, 전투장소의 위치 비정, 전쟁의 성격이나 원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4. 나당전쟁 연구의 제문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축적되어 왔다.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였고, 이에 나당전쟁에 대한 이해는 풍부해졌다. 그러나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당전쟁에 관한 연구는 토번의 발호로 인해 나당전쟁이 시작되고 종결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외부적 상황에 대한 검토없이 신라의 승리를 강조하는 견해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입장 차이는 각국의 이해관계 혹은 연구자들의 성향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670년대 토번의 발호로 인해 당의 군사전략의 중심이 동북에서 서북으로 옮겨갔으며, 이에 따라 676년 이후 한반도에서 더 이상 당과의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당전쟁을 한반도에 국한시켜 신라의 승리만을 강조하는 견해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나당 간의 ‘전쟁자체’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단순히 당군의 이동유무에 따라 나당전쟁이 시작되고 종결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수긍하기 어렵다. 국제관계의 측면을 중시하다 보면, 전쟁의 동인과 추이에 대해 외부적 요인에만 치중하는 이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따라서 나당전쟁에 대한 연구는 토번의 발호라는 외부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나당전쟁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해야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5〉 나당전쟁 연구의 제문제

구 분		내 용
1	명칭 및 시기	나당전쟁 혹은 신당전쟁, 669년 혹은 670년
2	주요 전투 이해	오골성, 매소성, 기벌포 전투의 위치 및 양상
3	전쟁 종결 배경	토번의 발호 혹은 신라의 역량 그리고 복합적 요소
4	전쟁 성격	신라의 삼국통일전쟁 혹은 백제통합전쟁
5	고구려 유민 관련성	고구려 부흥운동 및 유민과의 연관성

나당전쟁의 연구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제점 내지 주안점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첫째, 명칭과 시기 구분 문제이다. 羅唐戰爭을 일컫는 용어로 對唐戰爭·新唐戰爭이라는 표현도 쓰이고 있는데, 對唐은 당을 기준으로 하는 용어로 당을 상대하는 주체가 모호하고, ‘신라의 대당전쟁’처럼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제동맹·나려동맹·나일관계·나당동맹·나당연합 등과 같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중국 및 일본학계에서는 唐羅戰爭이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대등한 의미에서 나당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60)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보인다.⁶¹⁾

나당전쟁에 대한 시기 구분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양병룡은 668~673년을 전기, 674~676년을 후기로 나누고 있으며, 박용국은 669~673년을 전기, 674~676년을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⁶²⁾ 임기환은 백제·고구려 유민의 활동을 고려하여, 669~671년을 제1기, 672~673년을 제2기, 674~676년을 제3기로 세분화하고 있다.⁶³⁾ 이상훈은 669~670년을 개전기, 671~673년을 확전기, 674~676년을 종전기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군사박물관에서는 670~673년을 ‘唐攻高麗之戰’으로, 이후를 ‘唐攻新羅之戰’으로 표현하고 있다.⁶⁴⁾ 이와 관련하여 나당전쟁의 개전 시점을 669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670년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둘째, 주요 전투의 이해 문제이다. 나당전쟁에서 가장 핵심 전투라고 하면 675년의 매소성 전투와 676년의 기벌포 전투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한국측 사서와 중국측 사서의 기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투의 승패 혹은 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⁶⁵⁾ 매소성 전투는 『삼국사기』에 당의 2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타 전투와 달리 전투의 전개과정이나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전투의 승패에 관해 중국측 사료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삼국사기』 자체의 신빙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매소성 전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세한 전황이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⁶⁶⁾ 또한 매소성의 구체적인 위치 비정에 관한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61)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62) 박용국, 『통일전쟁기 신라 정치세력의 구성과 변화』,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3) 임기환, 「고구려 유민의 활동과 보덕국」,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64) 中國軍事博物館 編, 『中國戰典』, 解放軍出版社, 1994.

65) 拜根興, 「“나당전쟁” 연구 중의 몇 가지 문제」, 『중국학보』46, 2002.

66) 김병희, 「매소성 전투의 위치와 실상에 대한 고찰」, 『군사』91, 2014.

한편 기벌포 전투는 『삼국사기』에 676년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池內宏은 『삼국사기』 撰者が 671년에 일어난 사건을 676년 기사에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보았다.⁶⁷⁾ 기벌포 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설인귀가 중국 사서에는 당시 유배 중이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당전쟁에 관한 중국측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의문스러운 점들이 발견된다. 『자치통감』과 『구당서』·『신당서』는 675년 2월 유인귀가 승리한 칠중성 전투는 모두 기록하였지만,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당이 패배한 그해 9월의 천성 전투와 9월 29일의 매소성 전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676년 2월 안동도호부가 요동으로 이동하는 사건은 『구당서』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신당서』에는 “移安東都護府於遼東”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중국 사서들의 불완전한 기사나 애매한 기록 등으로 볼 때, Jamieson이 언급한대로 중국측 사서보다 『삼국사기』가 보다 자세하고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⁶⁸⁾ 기벌포 전투를 지휘했던 설인귀의 행적 문제⁶⁹⁾나 기벌포 전투의 성격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셋째, 전쟁 종결의 배경 문제이다. 나당전쟁은 675년 9월 매소성 전투를 고비로 일단락되었다. 국내학계에서는 매소성 전투가 나당전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당은 매소성 전투의 패배 결과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당의 한반도 지배야욕은 좌절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외학계 및 일부 국내학계에서는 당시 당은 서북의 토번(티베트)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동북의 한반도는 방기되었다고 보고 있다. 당의 군사전략의 중심이 동북에서 서북으로 대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매소성 전투가 발생하였

67) 池內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12, 1930.

68) John C. Jamieson, 「나당 동맹의 와해 -한중 기사 취합의 비교-」, 『역사학보』 44, 1969.

69) 이상훈, 「나당전쟁기 기벌포 전투와 설인귀」, 『대구사학』90, 2008.

으므로 매소성 전투에 대한 이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⁷⁰⁾

당의 군사전략 중심이 동북에서 서북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676년 윤3월 이후이다. 이때 토번의 당 內地 공격으로 인해 감목장 상실·교통로 단절·군사력 약화는 물론 수도 장안까지 위협에 노출되자, 당은 군사전략을 바꾸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⁷¹⁾ 그러므로 나당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매소성 전투가 발생한 675년 9월은 당이 공세를 지속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소성 전투가 발생한 675년 9월은 당이 철수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이 토번을 공격하기 위해 사전에 한반도 주둔군을 이동시켰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와 있다.⁷²⁾ 이렇듯 나당전쟁의 종결 배경에 대한 문제도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전쟁의 성격 문제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에 관한 논의는 신라의 삼국통일전쟁론과 신라의 백제통합전쟁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하다. 김영하는 신라가 외세인 당을 끌어들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영토 또한 대동강 이남으로 제한됨으로써 불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고 보았다.⁷³⁾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삼국통일’이라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라 백제고지를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반면 노태돈은 5~6세기 전반으로 기준해 볼 때 신라가 통합한 영역의 상당부분이 고구려의 故地이며, 오늘의 한국과 한국인의 틀을 형성하였으므로, 신라의 통합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크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⁷⁴⁾

백제통합론의 주요 근거로는 나당전쟁의 주 전선이 임진강을 중심으로

70) 拜根興,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서영교, 『나당전쟁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6.

71) 이상훈, 「나당전쟁기 당의 군사전략 변화」, 『역사교육논집』, 2006.

72)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73) 김영하, 「신라의 백제 통합전쟁과 체제 변화」, 『한국고대사연구』16, 1998.

74) 노태돈, 「7세기 전쟁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 『한국사연구』154, 2011.

형성된 점과 나당전쟁 후 신라가 적극적으로 북진하지 않은 점 2가지를 들고 있다. 즉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고지를 신라가 장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 신라가 백제 통합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게 된다.⁷⁵⁾ ① 668년 고구려 멸망 후 안동도호부로 귀속된 비열홀(안변) 지역을 신라는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당에게 반환하지 않았는데, 당과 직접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비열홀 문제로 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 ② 670년 3월 나·려 연합군을 형성하여 요동으로 선제공격하였는데, 당과 직접 무력충돌을 일으켜 신라가 당의 주적이 된 것을 굳이 상기시킬 필요가 없었다. ③ 671~673년 사이 나당간의 무력충돌은 주로 황해도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신라가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고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④ 670년대 초반 아직 백제 고지가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라가 황해도 평야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 자체가 전략상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신라가 단순히 백제고지만을 통합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물론 신라가 고구려고지 전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 표명이나 군사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대동강 이남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선을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나당전쟁 당시 혹은 그 이후 신라의 북진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고구려 유민과의 관련성 문제이다.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부흥운동과 나당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관련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⁷⁶⁾ 또한 안동도호부의 移置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나당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멸망 이후 부흥운동이 대동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75) 이상훈,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2012.

76) 井上直樹, 「高句麗遺民と新羅 -七世紀後半の東アジア情勢-」, 『東洋史研究』 75-1, 2016.

있다. 하지만 최근 요동 지역의 고구려 부흥운동도 주목되고 있다.⁷⁷⁾ 시기적으로 볼 때 요동 지역의 고구려 부흥과 신라의 오골성 공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도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상과 같이 나당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차이는 결국 나당전쟁 자체의 현상 및 결과와 의의를 이해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백제통합론을 따른다면 나당전쟁은 삼국통일전쟁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며, 당과의 전쟁보다는 백제의 통합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당의 한반도 방기론에 근거하여 나당전쟁의 핵심전장인 매소성·기벌포 전투를 바라본다면, 나당전쟁에서 당이 패배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675년 매소성 전투가 신라의 승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당전쟁에 관한 대부분의 한국측 연구성과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벌포 전투가 676년에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면, 삼국통일의 시점은 676년이 아니므로 그 이전 시기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국내·외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나당전쟁의 성격 문제와 매소성·기벌포 전투의 의문점들은 나당전쟁을 이해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나당전쟁은 일제강점기 일본학자들에 의해 일부 주목을 받았지만, 국내학계에서는 큰 관심을 끄는 주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러 나당전쟁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연구가

77) 김강훈, 「요동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군사』99, 2016.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근자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나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당전쟁 관련 자료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사료의 입장 차이 때문에 서술 내용 또한 서로 다른 점이 많다.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사료를 바탕으로 하면서 새롭게 발굴되는 금석문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戰場의 이해를 위해 인접학문인 고고학·지리학·천문학·기상학 등의 연구성과들도 적극 참조하여 논의를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여겨진다.

현재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나당전쟁을 주제로 한 석·박사학위논문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련 사료가 풍부하지 않은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나당전쟁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석문 자료의 활용이나 새로운 연구방법의 도입으로 시각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또한 나당전쟁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보다 정치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원고투고일: 2016.8.31, 심사수정일: 2016.9.5, 게재확정일: 2016.9.6.]

주제어 : 나당전쟁, 신라, 당, 오골성전투, 매소성전투, 기벌포전투, 삼국통일

<ABSTRACT>

Research Trend and Prospect of the Na-Tang War

Yi, Sang-hun

The 7th century was the time when Three Kingdoms(三國) are unified. Silla and Tang Allied forces(羅唐聯合軍) made Baeje(百濟) and Goguryo(高句麗) extinct. But Silla and Tang fought each other for territorial problem. This is the Na-Tang War(羅唐戰爭). By the way, the point of view by which the Na-Tang War is judged is different respectively. China and Japanese scholars emphasized the role of Tibet(吐蕃). But Korean scholars emphasized the role of Silla. And a problem of a history record in China and Korea is also left. Such study has started in earnest from that in the 1980s. A study was proceeded with actively from that in the 2000s. There are also a lot of studies in China and Japan at present. Much argument has to consist from now on.

Key words : the Na-Tang War, Silla, Tang, Ogoalseong Battle, Maeseong Battle, Gibulpo Battle, the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